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해외출장 보고서

2018. 5

제주연구원

I. 출장개요

- 목 적 :
 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외 선진 사례 답사를 통한 자료 수집
 - 스위스는 Engiadina Val Müstair와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 2곳을 지정받았음
 - 2017년 6월에 확대 지정받은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에 따른 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
 - 2001년 지정받은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내 자연자원 보전 및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
- 기 간 : 2018년 4월 17일~4월 22일 (4박6일)
- 대상국가 : 스위스
- 여행인원 : 총 4명(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, 오승연 위촉연구원, 장광섭 비상임연구위원 세계유산본부 김기조 주무관)
- 주요 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인물
4월 17일 (화요일)	제주	인천 취리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주→김포공항 • 김포공항→인천공항 • 인천공항→스위스(취리히공항) 	
4월 18일 (수요일)		취리히	Situationsplan Biosphärenzentru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UNESCO Biosphäre Entlebuch 방문 및 관람 	Florian Knaus (Scientific Coordinator)
4월 19일 (목요일)		취리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iosfera Engiadina Val Müstair 방문 및 관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위스 국립공원 : Heinrich Haller (Direktor) • Engiadina Val Müstair : Abderhalden Angelika (Direktor)
4월 20일 (금요일)		루체른 인터라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위스 유네스코위원회 및 환경청 방문 • MT. JUNGFRAU 방문 및 관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위스 유네스코위원회 : Christof Bareiss • 환경청 : Carlo Ossola
4월 21일 (토요일)		루체른 취리히	인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관광지 방문 및 관람 • 취리히공항→인천공항 	
4월 22일 (일요일)	인천	제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천공항 도착 • 인천공항→김포공항 • 김포공항→제주공항 	

II. 출장내용

1) UNESCO Biosphäre Entlebuch 방문 및 관람

(1) 회의 내용

○ 개요

- 회의 및 답사 일시 : 2018.04.18(수) 10:30~13:30
- 회의 장소 : Situationsplan Biosphärenzentrum 2층 회의실
- 참여자 : Florian Knaus(Scientific Coordinator)
강진영 책임연구원, 오승연 위촉연구원,
김기조 주무관(세계유산본부)
장광섭 비상임연구위원(세계 심·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시 무국)



<그림 1> UNESCO Biosphäre Entlebuch 설명(Florian Knaus(Scientific Coordinator))

○ 주요 내용
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개요 설명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운영 및 브랜드 제품 개발·판매·운영 등에 관한 질의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현장 및 제품 판매점 답사

(2) UNESCO Biosphäre Entlebuch 답사 결과

○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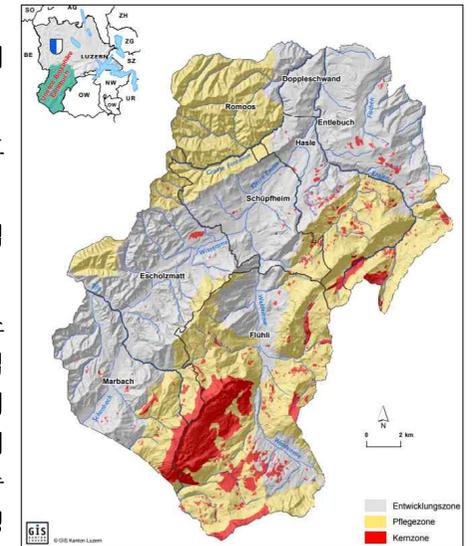
- 지정일자 : 2001년
- 위치 : 스위스 루체른
- 면적 : 396.59km²
- 인구 : 17,000명(7개 마을)

○ 용도구역

- 핵심구역 : 31.73km²(8%), 습지보호지역(110개의 이탄습지)
- 완충구역 : 166.57km²(42%), 경관보호구역(농업경관)
- 협력구역 : 198.29km²(50%), 집약적 농업 이용지역

- 지정목적 : 과거 스위스에서 저소득 지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, 주민투표(찬성 93%)를 통하여 자발적(상향식 추진방식)으로 지정 추진함

- 주요 특산물 : 치즈, 우유, 임업, 관광 등
- 주요 축제 : 소 퍼레이드(가을 목축 전통행사)
- 기타 : 2008년 스위스 법률에 의한 지역자연공원으로 지정됨



<그림 2>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구역설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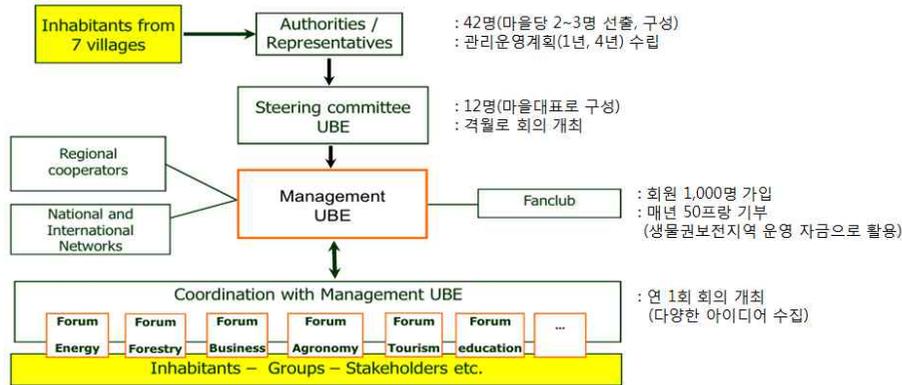
(3)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 및 운영

○ Situationsplan Biosphärenzentrum
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센터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·감독, 연구 및 교육, 개발 프로세스 촉진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함
- 관리센터 내에 농업·산림 등의 기관이 있어,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으로 모니터링 및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함

- 스위스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주민을 주체로 상향식 추진방식으로 관리·운영되며, 마을당 2~3명의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(42명)는 관리운영 계획(1년, 4년)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(마을대표 12명으로 구성)에 제출 후 피드백을 통해 조율함

-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지역주민, 단체,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·임업·사업·농업·관광·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각각의 포럼으로 구성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협력위원회와 유기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, 이를 추진하고 있음



<그림 3>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운영체계

- Biosphere Market AG
 - 생물권보전지역 제품 홍보와 유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팀의 아이디어로 설립한 회사임
 -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Biosphere Market AG의 주주이기도 하며, 운영위원회 구성원임
 - Biosphere Market AG의 매니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주 단위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
 - Biosphere Market AG는 생물권보전지역 내 원료 및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,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관리센터는 자연 보전, 경관 및 도시계획, 연구 및 교육, 생태관광, 지역경제,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등의 분야에 정규직원 10명과 파트타임 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, 필요 예산 250만 CHF(프랑)은 국가(50%), 주(20%), 지역자치위원회(20%), 생물권보전지역 프로젝트 수익(10%)으로 운영되고 있음

(4)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

- 보전활동
 - 황무지, 아탄습지, 카르스트 지형 등으로 구성된 핵심·완충구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연구·모니터링 활동 및 교육·생태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임
 - 모니터링 활동 및 장기 연구, 외부 및 내부 조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BSc, MSc, 박사 논문 데이터 제공 및 지원함
 - 지역 내 중요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식 공유(관리, 운영 위원회, 지방 자치 단체, 기업, 기관 등) 체계를 구축함
 - 산림발전계획(Forest Development Plan) : 생물권보전지역 내 산림지역은 100% 사유지로 개인 소유자 및 농가의 산림지역 이용방법(현황 및 향후 의사 등)에 대한 조사 후 연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재 산림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위협요소 제거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지역 주민과 합의된 공간적 해결책으로써 지역주민은 이 계획을 준수함
- 생태관광프로그램
 - 생물권보전지역 내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요리, 목공예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
 -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소풍, 생태체험, 관찰·견학 프로그램(개인, 단체) 등을 운영함
 - 소 퍼레이드 : 고지대 목초지에서 사육하는 소가 산 밑 마을로 내려오는 전통행사를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치즈 등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함
- 경제 활동
 -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브랜드로 "Echt Entlebuch"를 개발, 60개의 업체에서 500개(2016년 463개, 2015년 420개)의 라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, 라벨 제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
 -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제품은 지역 내 판매장 및 Biosphere Market AG를 통해서 홍보·마케팅·유통 등을 통해서 판매됨
 - 라벨 제품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표1과 같으며, 이를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 내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, UNESCO Biosphäre Entlebuch

파트너로 지정된 지역 내 숙박업소, 레스토랑 등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함

- 라벨 제품은 비라벨 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, 이는 실질적 지역 농가 소득 증가로 나타남

[표 1]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라벨 제품 선정 기준

<p>Protected area product label “Echt Entlebuch”</p> <p>제품 원료(예: 우유) : BRE내 생산 80% 이상</p> <p>가공품(예: 소세지) : 주원료 및 부원료가 BRE내 생산 80% 이상</p> <p>제품의 부가가치 : 2/3가 BRE내 생산</p>



<그림 4>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라벨 제품 및 판매장
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라벨 제품은 유통과 판매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회사가 판매실적을 모니터링하며, 제품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은 외부업체에서 제품 질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대행사를 통해 2년에 1번 불시에 진행함

○ 환경교육프로그램
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유네스코 스위스위원회 후원으로 생물권 학교가 있으며, 생물권 학교 수업은 1년에 2회 운영하고 있음
- 현장학습, 학교체험농장 등 약 70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에 맞게 조정되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

공하고 있음

-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됨
- 생물권보전지역 내 선생님을 포함한 250명의 교사가 있으며, 2,5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하였음
- 네트워크 활동
 -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은 연구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
 - 경제 분야에서는 Choba Choba 협력사업은 스위스 초콜릿 회사의 제안으로 페루 생물권보전지역 ‘그랑파자테인(Gran Pajatén)’의 카카오 생산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페루 생물권보전지역 내 원료(카카오)를 수입하여 초콜릿을 생산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이 있음
- 기타 지원활동(기업의 자원봉사활동)
 - 기업의 자원봉사 의무제도(연 2일)를 이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
 - 생물권보전지역 내 농가(목장)의 덩불제거 작업 등 단순 작업을 지원하며,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생물권보전지역에 비용을 지불하며, 이 비용은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됨

2)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ustair 방문 및 관람

(1) 회의 내용

○ 개요

- 회의 및 답사 일시 : 2018.04.19(목) 14:30~19:30
- 회의 장소 : National Park Centre 2층 회의실
- 참여자 : Heinrich Haller(스위스 국립공원 Direktor)

Abderhalden Angelika (UNESCO Engiadina Val Müstair Direktor)

강진영 책임연구원, 오승연 위촉연구원, 김기조 주무관(세계유산본부), 장광섭 비상임연구위원(세계 섬·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)



<그림 5> 스위스 국립공원(좌), UNESCO Engiadina Val Müstair 설명

○ 주요 내용

- 스위스 국립공원과 UNESCO Engiadina Val Müstair의 개요
- UNESCO Engiadina Val Müstair 확장 후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
- UNESCO Biosphäre Entlebuch 현장 답사

(2)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üstair 답사 결과

○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üstair 개요

- 지정일자 : 1979년(최초, 핵심구역(스위스국립공원)만)

2017년(완충·협력구역 포함)

- 위치 : 스위스 그리종(Graubünden)
- 면적 : 448.57km²

○ 용도구역

- 핵심구역 : 스위스 국립공원 170.33km²(38.0% : S-chanf(23.06),
Zernez(116.22), Val Müstair(8.29), Scuol(22.76))
- 완충구역 : 173.73km²(38.7% : Val Müstair(86.34), Scuol(87.39))
- 협력구역 : 104.51km²(23.3% : Val Müstair(104.00), Scuol(0.51))

○ 확대 이유 및 추진과정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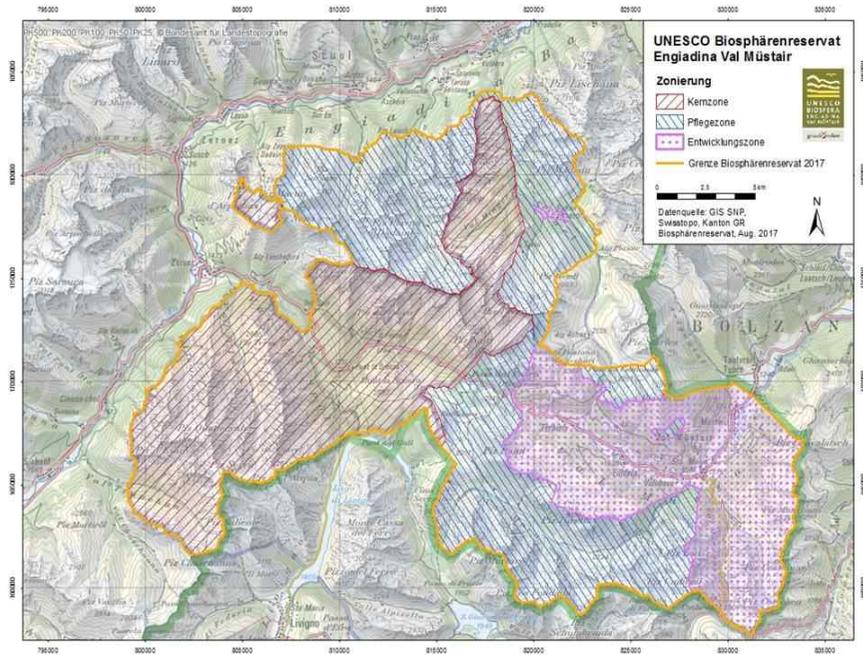
- 1979년 완충 및 협력구역 없이 스위스 국립공원 (SNP)을 핵심구역으로 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함
- 1995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·완충·협력구역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‘인간과 생물권(MAB)’의 일환으로 인간과 생물권 사이의 균형 잡힌 관계 촉진의 어려움이 발생함
- 2001년부터 스위스국립공원(SNP)은 Val Müstair와 협력하여 완충 및 협

력 구역 확대를 추진함

- 첫 번째 단계에서 Biosfera Val Müstair는 자연 및 국토안보법에 따라 지역자연공원 지정 신청 및 2010년 연방정부는 지역자연공원 Biosfera Val Müstair를 지정받음
- 2010년 6월 UNESCO는 “UNESCO Biosphere Reserve Val Müstair Parc Naziunal” 핵심구역을 완전히 둘러싼 완충 및 협력구역 설정을 조건부로 승인받음
- 2015년 6월 Scuol, Zernez 및 S-chanf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포함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 Scuol 지역은 찬성(81.9%), Zernez 및 S-chanf 지역은 반대하였음
- 2016년 8월 스위스국립공원(SNP), Val Müstair, Scuol을 포함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름을 "UNESCO Biosfera Engiadina Val Müstair"로 지명하기로 결정함
- 2017년 6월 UNESCO의 MAB 프로그램 국제 조정 협의회(UNESCO MAB Programme)는 "UNESCO Biosfera Engiadina Val Müstair"를 지정함

○ 주요특산물

- 치즈, 우유, 버터, 소시지, 기타 육류 가공 제품, 임업, 관광 등이 있음
- 생물권보전지역 제품 : Surpraisa jaura(현지 소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에 지역 농산물들과 정보책자, DVD가 들어있음)



<그림 6>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üstair 구역설정도

3)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üstair, 스위스 국립공원 (핵심구역)

(1) 방문 내용

○ 개요

- 스위스 국립공원 : 공공 재단
- 위치 : Canton Grisons (Engadine)
- 표고 : 해발 1400m(Clemgia / Scuol) - 3174m(Piz Pisoc)
- 기후 : 건조, 거친 날씨, 강한 햇빛, 낮은 습도
- 면적 : 170.3km²(17,030 ha)
Zernez(68.6), S-chanf(13.5), Scuol(13.2), Val Müstair(4.7)
- 국립공원 지정일 : 1.8.1914년 8월 1일(시작 : 1909년, Zernez의 Val Cluozza에서)
- 국립공원 역할 : 생태계 보존, 연구, 정보 제공
- 트레일 네트워크(Wegnetz) : 80km의 공식 하이킹 코스가 있으며, 그 중 2

개는 알파인 루트(white-blue-white)임

- 관광객 수 : 연간 약 150,000 명
- 관광프로그램 : 개인 투어 가이드 프로그램, 문학 하이킹 가이드 프로그램, 자연 트레일, 어린이 및 가족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
- 지형적 특징 : 산림 28%(산림 99.5% 침엽수림), 알파인 21%(고산 식물 서식처), 황무지 51%(돌, 바위, 높은 산)
- 주요 종 : 붉은 사슴(1,800~2,000마리), 아이벡스, 샤크모아, 마모트, 북부 지방의 토끼, 도마뱀 및 수염 독수리 등과 같은 희귀 조류들 등이 서식함
- 스위스 국립공원(SNP)은 면적이 170.3km²로, 스위스에서 가장 큰 야생 지역이며, 국제자연보전연맹(IUCN)은 카테고리 Ia 보호구역(보호등급이 가장 높은 야생 지역)으로 지정하고 있음
- 스위스 국립공원(SNP)은 1914년에 설립되었으며, 알프스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임
-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스위스 국립공원에 대해 스위스 국립공원 센터는 모니터링(생태계 변화 및 생물종 등), 연구(기후 변화 등),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
- 스위스 국립공원 관리 센터는 체르네츠(Zernez) 내 유서 깊은 Planta-Wildenberg 성을 개조하여 관리사무소, 회의실, 대강당(150명 수용)으로 사용하고 있음
- 체르네츠(Zernez) 내 스위스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보제공, 전시회, 지역행사 공간 제공, 상점 등이 있음
- 스위스 국립공원 80km의 등산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, 사람들의 출입은 적설량이 많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통제되지 않으나 코스 이외의 지역은 출입을 금지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
- 스위스 국립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, 연간 400~500만 CHF(프랑)의 예산 중 300~350만 CHF(프랑)은 정부 지원, 100~150만 CHF(프랑)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함



<그림 7> 스위스 국립공원(핵심구역)



<그림 8> 스위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<그림 9> 스위스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

2) UNESCO Biosphäre Reserve Engiadina Val Müstair

-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은 1979년 스위스 국립공원을 핵심 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정받음
- 1995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인간의 이용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완충구역과 협력구역 설정을 권고 받음
- 이에 스위스 국립공원은 Val Müstair와 협력하여 완충 및 협력 구역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, 지역공원 준비 재단(Swiss Office in Grisons)은 1차 단계에서 2010년 지역자연공원을 지정, 2차 단계에서는 Scuol을 포함한 지금의 생물권보전지역을 2016년 신청하여 2017년 지정받았음
- 스위스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며, 스위스 국립공원과 Val Müstair 지역자연공원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음
- Engadin은 마케팅 측면에서 지역자연공원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이점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주(Canton)에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나, 지역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Scuol 지역(협력구역)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음

- Engadin 전체에 대한 주(Canton)의 재정 지원을 Scuol 지역은 나눠 써야 하는 상황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움
- 현재 협력구역인 Scuol 지역을 지역자연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, 이는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제 1순위 사업임
-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라벨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, 현재는 스위스 지역자연공원의 라벨을 이용하고 있음
- 현재 지역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<그림 10> 스위스 지역자연공원 라벨 생산된 제품의 경우만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며, Scuol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라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
-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라벨과 지역자연공원 라벨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더 높음
-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센터는 스위스 국립공원 관리 센터와 차별을 두기 위해 Scuol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,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는 1명임



3) 환경청 및 스위스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

(1) 면담 내용

○ 개요

- 면담 일시 : 2018.04.20(금) 9:30~10:30
- 면담 장소 : 스위스 유네스코 위원회 1층 회의실
- 참여자 : Christof Bareiss(스위스 유네스코위원회)

Carlo Ossola(환경청)

강진영 책임연구원, 오승연 위촉연구원

김기조 주무관(세계유산본부)

장광섭 비상임연구위원(세계 삼·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)



<그림 11> 환경청과 스위스 유네스코 위원회 담당자와 면담(좌) 및 기념(우) 사진

○ 주요 내용

- 스위스 공원 체계
- 스위스 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과의 연계

(2) 환경청 및 스위스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 결과

- 스위스에 공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이고, 그 전에는 보호구역(경관 등)만 있었으며,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자연공원 개념을 도입하였음
- 2000년대 초반까지 스위스에는 국립공원을 위한 자체법은 제정되어 있으나, 그 외의 공원에 대한 개념은 없는 상태였음
- 2001년 Entlebuch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고, 핵심구역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하여 의회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 제정 또는 자연보호법 개정을 요청하였음
- 이에 환경청은 2007년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으며, ‘국립공원, 지역자연공원, Urban Park(도시공원)’의 공원 체계를 정하고 지정하기 위한 지역의 신청을 받았음
- 지정시스템은 Bottom-up 방식으로 지역주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며, 지역주민의 찬성을 전제로 지역이나 주로부터 신청을 받고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스위스 공원 라벨이 주어짐
- 스위스 공원 라벨을 받은 공원은 정부와 계약 형태로 주(Canton)가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아 각 공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며, 환경청은 4년마다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정부 재정지원 여부를 재결정하게 됨
- 모든 공원의 예산은 2천만 CHF(프랑)으로 3백만 CHF(프랑)은 Swiss

National Park의 예산이고, 1천 4백만 정도는 15개의 자연공원으로 분배되며, 나머지는 네트워킹과 캠페인에 사용됨

- 환경청에서 계획하는 프로젝트는 100%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는 50% 지원 가능하며, 국립공원 지정과 같은 프로젝트는 지역차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더라도 지정되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외적으로 65%를 지원해주고 있음

→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은 예산이 250만 CHF(프랑)으로 project가 많아서 더 지원되고 있으며, 자체적 기금 조성, 주(Canton)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나 단체에서 지원이 되기도 함

- 생물권보전지역과 스위스 공원과 다른 점은 핵심구역(Core Zone)과 국제적 네트워크로 스위스 공원은 핵심구역이 없으며,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차이가 있음
- 스위스에는 현재 15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, 자연공원은 10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하고, 10년 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함
- 공원 구역 설정 및 관리계획을 결정은 주(Canton)에서 담당함
- 환경청은 평가지표를 통한 공원 지정과 관리계획 상 재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정하여 지원해주는 역할을 함
- 환경청은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관리운영에 대한 framework을 제공하기도 하며, 공원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평가를 통해 수정할 부분을 피드백을 하는 코칭 역할 후에는 평가자 역할을 담당함
- 관광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경제부에서 담당함
-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제품 라벨은 크게 2가지가 있으며,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사용하는 자체 라벨과 공원 라벨로 Entlebuch 생물권보전지역 외의 공원에서는 공통된 공원 라벨을 사용하고 있음
- 공원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벨 사용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함
- 생물권보전지역 라벨과 공원 라벨은 국가보호법에 지정되어 있음
- 스위스 국립공원 주위에 MAB Zoning에 따른 협력구역 설정을 계획하였으나 상향식 접근법에 의한 방식으로 인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음
- 연방법(Federal Law)에 의해 하향식 접근법이 사용되는 스위스 국립공원의 협력구역으로 인근 지역인 체르네츠(Zerne)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, 이 지역은 상향식 접근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실패

하였음

- 그러나 체르네츠(Zernez) 지역은 주법(Cantonal Law)에 의해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스위스 국립공원 인접하여 협력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
- Engiadina Val Müstair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스위스 국립공원과 Val Müstair 지역자연공원이 있으며, 이 지역에서는 스위스 국립공원 라벨과 공원 라벨이 사용되고 있음
- 국립공원 디렉터는 베른 Extraparliamentary commission에서 선출하고, 지역 공원 디렉터는 지역에서 선출함에 따라 다른 거버넌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공원 라벨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함

4) MT. JUNGFRAU 관람

(1) 관람 내용

- 개요
 - 관람 일시 : 2018. 04. 20(금) 12:30~17:30
 - 참여자 : 강진영 책임연구원, 오승연 위촉연구원
김기조 주무관(세계유산본부)
장광섭 비상임연구위원(세계 섬·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 사무국)
- 주요 내용
 - 세계자연유산인 MT. JUNGFRAU의 생태관광자원화 방안
 -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

(2) MT. JUNGFRAU 관람 결과

- 융프라우는 총 높이 4,158m로 라우터브루넨 계곡에 있으며, 인터라켄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져 있음
- 아름다운 산악 경관과 잘 보존된 빙하지대 고유의 지질학적 특징, 알프스 특유의 다양한 생태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(지정면적 53,900ha), 2007년 그 범위를 동서로 확장함(지정면적 82,400ha)
- 융프라우 등정은 인터라켄에서 출발하여 암벽을 뚫고 1912년부터 운행되

기 시작한 산악열차로 정상인 융프라우 요흐(3,454m)까지 이어짐

- 인터라켄 OST역에서 융프라우 요흐까지는 왕복 4시간 20여분 정도 소요됨
- 융프라우요흐 산악열차를 타면 알레취 빙하(Aletsch Glacier), 융프라우, 뢰히, 쉴트호른(Schilthorn), 플렉 포레스트 등을 전망할 수 있음
-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왕복 총 7번을 갈아타며, 경관 및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갈아타는 역의마을을 관광 코스화 함



<그림 12> 그린텐발트(Grindelwald) 전경 사진

- 융프라우요흐로 관람 코스에는 산악열차 조성에 관한 역사 안내판 및 경관조망시설이 곳곳에 있었으며, 얼음을 테마로 한 얼음궁전 내에는 얼음 조각상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함



<그림 13> 산악열차 조성관련 역사 안내판 및 얼음조각상

- 홍보물 중 여권 형태로 제작하여 뒷면에는 융프라우요흐 방문인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가 있음
-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스넥바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며, 컵라면 이용 할인권을 발행하여 스넥바 이

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함

III. 시사점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
 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지정이 가능한 원료 및 제품의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징적인 라벨 부착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서 그 수요와 판매가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어 지역 농가 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
 - 현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라벨 제품 지정 기준인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라벨 부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또한 라벨 제품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시설, 음식점, 판매점 등을 파트너로 체결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전략 도입이 필요함
-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제품에 대한 개발·홍보·마케팅 및 판매 조직 구축
 -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 - 지역 생산물을 이용한 라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, 기존의 라벨 제품 생산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함
 -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담당하는 별도의 홍보·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내 판매 및 지역 외 판매 전략 수립이 필요함
- 자원봉사를 활용한 지역 농가 지원 정책 마련 필요
 - 제주도내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일손을 사들여 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기업 및 공기업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를 활용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
 - 학생들의 경우 자원봉사 점수제도 및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분야 확대
 - 현재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구, 교육, 홍보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

- 엔트레부호의 초바초바 초콜릿 협력사업과 같이 타 생물권보전지역과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방안 마련이 필요함
- 생물권보전지역 주민들의 자생력 강화
 - 현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구조는 2개의 시범 마을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형태임
 - 그러나 이들 마을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각종 지원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약함
 -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에 대한 경쟁적 구조 형성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사업이 필요
 -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
 -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정부 및 자치도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
 -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도의 지원 촉구 및 펀드, 기금, 프로젝트 수익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